

EM마크 획득으로 우수성 입증

시작은 도전과 의욕으로 마무리는 정성으로

EM마크 획득 우수성 인정

포장기계 시장의 불모지에서 도입 단계로 이행하던 지난 80년 천세산업(주)를 모체로 하여 카톤포장기계 제작에 나섰던 천세자동기(주)(대표이사 조의수)는 지난해 국내 포장기계 업계에서 처음으로 EM마크를 획득함으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선두업체임을 입증시켰다.

포장의 최종단계인 외포장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종의 포장기계 가운데 카톤포장기계는 작업의 복잡성과 중요성으로 포장기계의 꽃이라 할만하다.

포장의 흐름에 있어 혁신적이라 할

만큼 포장산업에 끼친 영향이 지대한 카톤포장기계는 수작업에 의존하던 포장작업의 마무리를 기계화시켜 인력절감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 카톤포장기를 제일 먼저 도입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천세산업을 모체로 94년 포장기사업부의 사업전문화 일환으로 별도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천세자동기는 개발의 의지로 땀을 쏟아내고 있다.

1980년 폐수처리설비, 정량펌프 등을 생산하면서 자동포장기계를 생산해 오던 천세산업은 1986년 자동수축포장기계(PSW-400)를 국산화하면서 포장기계 전문메이커로서의 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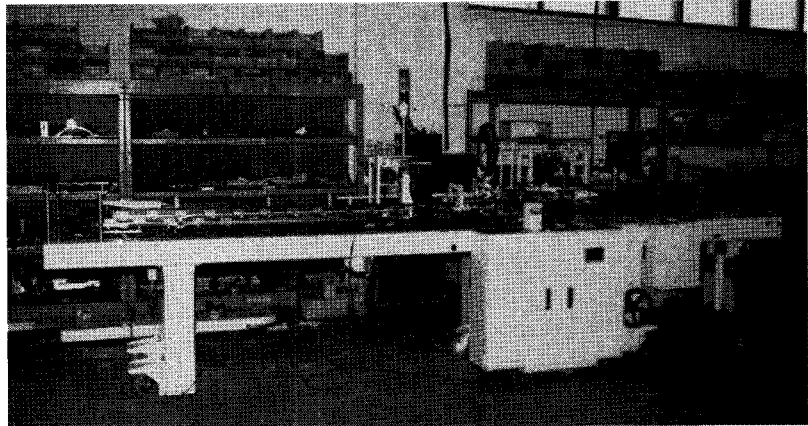
▲ 조의수 대표

잡고,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포장기계 제작 및 보급에 나서기 위해 일본 자동정기(주)와 기술제휴로 자동카톤포장기계를 생산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자동카톤포장기 제작업체의 대명사로 불리우게 된 천세는 그동안 유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카톤포장기계의 국산화에 나서 1991년 한국기계공업진흥회로부터 특수 용기가 포함된 자동카톤포장기계(모델명 C-7A)를 국산화 대상품목으로 선정받아 다음해 개발 완료했다.

또한 93년에는 신한국형 자동카톤포장기계 SHP-3을 개발하는 등 카토너 전문회사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잡았다.

94년 포장기계사업부를 별도법인인 천세자동기로 분리한 천세자동기



▲ 잘 정돈된 부품들과 제작중인 기계

는 7월 화장품업계 전용 전자동 카톤포장기계의 개발에 성공하여 호평을 받았으며, 포장재 플랩밴딩 및 로딩장치, 자동포장기용 매거진의 날개공급장치에 대해 실용신안을 출원했다. 과감한 투자로 개발에 나선 천세자

동기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카톤포장기의 개발에 전념하여 94년 9월 스틱포장기 연결 전자동 인덱스형 카톤포장기계를 개발, 원터치 카톤 자동포장기계 국산화 대상품목으로 선정받게 되어 공업발전기금을 지원받아 국산화 개발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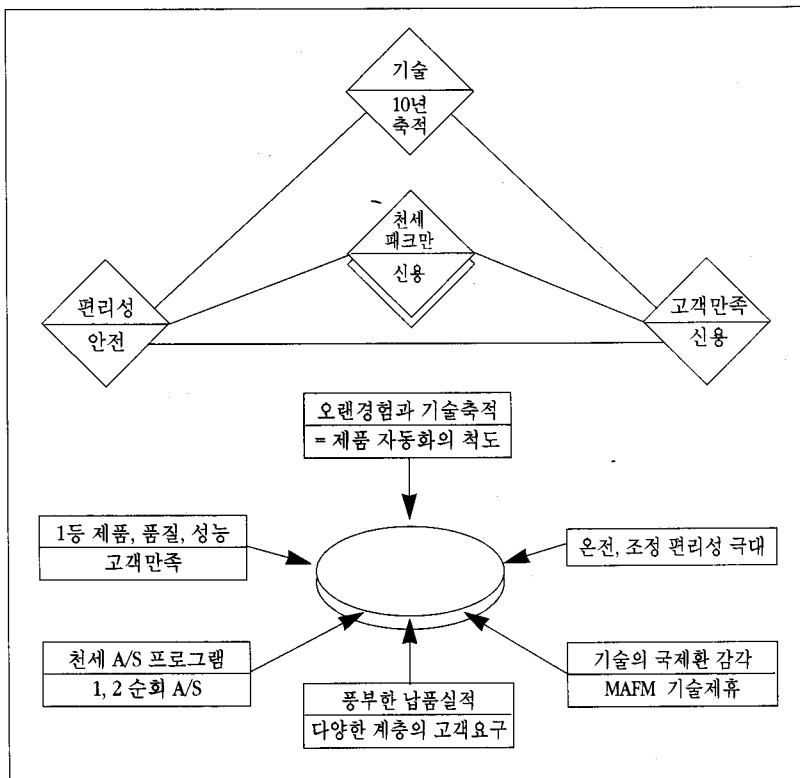
95년에는 직립형 간헐방식 자동카토너(N-75) 개발, 이코노믹형 카톤휘머(CF-60)개발, 필기구의 정량포장장치 및 방법 특허획득 등 꾸준한 노력으로 지난해 전자동 카톤포장기계 업계 처음으로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우수품질(EM마크) 획득하고 지난 1월에는 알갱이 자동공급장치를 실용신안 출원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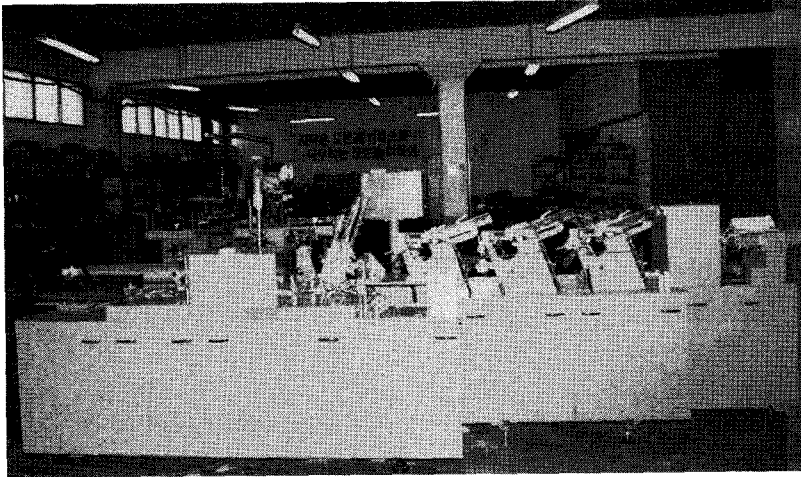
이같은 노력으로 국내 유수의 식품, 제약, 화장품 업계에 많은 납품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태평양제약, 영진약품, 동성제약, 럭키, 태평양, 코리아나, 해태제과, 동서식품 등 국내 최대의 납품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브랜드명 '천세팩크만'

10년 전통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창출해 낸 고유브랜드 천세팩크만

(표 1) 천세카토너의 기술신용도





▲ 천세자동기 작업장 내부

은 자동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 상황에 따라 고객환경에 적합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처음으로 카톤포장기 자동화의 문을 연 이래 전통기술과 장이의 고집으로 품질과 성능에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천세의 제품은 작업현장에서 도출된 문제를 가장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문 물량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유저들 역시 한번 사용한 제품에 대한 재구매 요청이 80%에 이르고 있어 천세제품의 우수성을 입증시키고 있다.

그동안 낙후됐던 이 분야의 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해 상공부(현 통상산업부)의 승인을 얻어 기술선진국인 일본의 자동정기과 기술협력을 맺어 역 수출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던 천세는 자사 판매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A/S 요청이 들어오면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예로 다른 결재서류와는 다르게 A/S요청이 들어오면 빨간색 용지에 작성, 누구나 긴급을 요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했으며, 담당 팀에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조 사장의 경우 최근에는 선진화된 경영수업을 익히기 위해 공부에 열중하고 있으며, 전직원들도 수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 놓고 있다.

천세자동기계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카토너를 중심으로 한 포장기계 전문회사로 웅비하는 것이다. 세계 우수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고 한국형 포장기계의 독자적 신제품 개발 등 미래에 비전있는 업체로 성장하는 것이다.

천세는 지난해 기술전문회사로서의 명성, 고객 니드에 따른 신제품 개발과 현장위주의 경영시스템 구축, 종업원 만족 경영과 신나는 일터를 만들어 인재육성과 재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는 'GOOD 2000'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10여년전 엔지니어로 천세산업에 입사하여 오로지 카토너 개발에 주력해왔던 조 사장은 "그동안 뿌렸던 씨앗이 발아돼 이제 성장을 하고 있어

꽃을 피워 관리를 잘해야 될 시기"라며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완벽하게 제작할 자신이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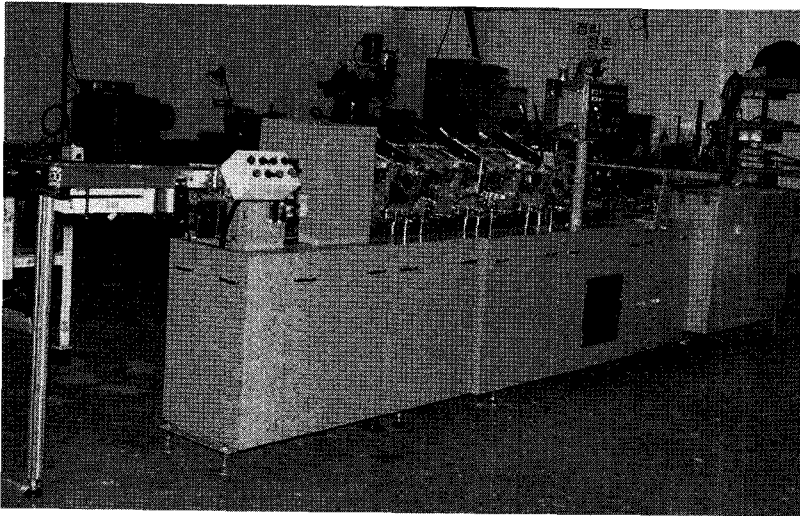
"그동안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고객들에게 더 나은 품질의 제품으로 보답하고 국내 카토너시장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는 조 사장은 고객 만족을 위해 설계진을 고객회사에 자주 방문토록 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 이를 종합하여 보다 나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참고하고 있다.

비전이 있는 회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 윤리적인 회사, 직원만족 회사를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는 천세자동기는 종업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 어학교육, 사무교육,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의 포장기계회사 가운데 성공할 회사의 성장사, 개발과정, 품목 등 사례를 조사하여 필요한 것은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도입하기도 한다.

직원 모두가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천세자동기는 직원들의 근무연수가 평균 6~7년으로 다른 업체가 겪고 있는 인력문제는 거의가 먼 인력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같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노력에서 나타난다. 어린이날 직원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고, 김장보조비 지급, 야유회 동반 등 회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로 직원가족들이 한가족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직원들이 돌아가며 직원들을 가정에도 초대하는 등 유대강화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 사장이 회사와 직장을 공동체로서 공감할 수



▲ EM마크를 획득한 자동고속카톤포장기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은 회사의 안정과 발전은 가정이 편안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다. 그는 요즘도 휴가철이면 마음에 맞는 이웃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가끔씩 볼링을 친다든지, 산행을 하기도 한다.

직원 가족에 대한 배려 적극

천세자동기는 앞으로 회사가 커지면 직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장기계획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은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실천해 가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는 조 사장은 안산지역에 위치한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 부의 공정분배도 실천하겠다"는 미래상을 밝히기도 했다.

조 사장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추진할 때 기술적인 면에서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연구소 등이 문호를 개방해 줄 것과 기술력 있는 회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

도 제시했다.

무조건적으로 국산기계를 이용해 달라는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는 조 사장은 "제작 메이커는 제대로 된 기계를 제작하는 자세로 기능 및 성능의 보완이 시급하다"며 "고객들도 사용한 후 불편했던 점들을 제시해 주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때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심한다면 외국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천세자동기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이다. 지난해 전반적으로 경기가 악화돼 다른 업체들은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천세는 국내시장에 알맞는 새로운 기계가 호평을 받아 100% 신장하기도 했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유저들과의 조화로 우리 작업현장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 공급함으로써 천세자동기가 성장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천세는 우수한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에게 기여하는 것을 경영원칙으로 포장기의 기본 원리부터 응용기술에 이르기까지 단

계적인 기술전수와 개발로 우리업체 실정에 적합한 포장기를 제작 보급해 왔다.

또한 엄격한 내부 품질기준을 설정하여 부품에서 완제품까지 내구성과 정밀도를 확보하여 최고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객의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기술, 고객의 소리로 만든 제품으로 지난해에는 EM마크를 획득했다.

EM마크 획득과정에서 제품의 설계관리, 구매업무,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품질시스템 확보, 사후관리 및 A/S 관리상태 등과 실제제품의 성능평가 등 여러가지 항목에 대한 심사를 받아 준비과정에서부터 끝날때까지 과정에서 경영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번에 우수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한 고속카톤포장기(모델 C-8)는 제품 자동공급장치, 트레이 자동공급장치, 설명문 자동공급장치 등이 장착된 최신형 고속포장용 카토너로써 특히 고속운전에서 우수한 성능과 편리한 운전기능을 갖추었으며, 점용제품의 경우 크기변환이 디지털 인디케이터 조절장치에 의해 30분 이내 세팅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또한 운전 종합정보를 모니터로 보여주는 터치패널 방식의 시스템과 원터치 작동에 의한 카톤 가이드로 작업이 편리한 게 특징이다.

천세자동기는 이번 EM마크 획득과 함께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우수품질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며, ISO 9000인증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오선진 기자